

7. 사업체 설립

외국 법인들은 체코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정도로 부동산 취득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그들은 회사의 설립자 또는 공동 설립자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체코 회사에 합류할 수도 있다.

외국회사들은 체코 공화국 내 등록된 지사를 개설하거나 또는 체코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체코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회사의 법적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4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형태로는 유한회사 (s.r.o) 와 주식회사 (a.s.)가 있다. 다른 형태로는 합자회사 (k.s.)와 합명회사 (v.d.s.)가 있는데 이들은 때로 세금 관련 이유 때문에 설립된다(대부분의 경우 독일어권 국가 투자자들에 의해). 또한 다음과 같은 유럽식 법인들도 체코에서 활동할 수 있다; (i) 유럽 경제 이해 단체(a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ii) 유럽 회사 (Societas Europea), 그리고 (iii) 유럽 협동조합(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지사와 회사 모두 상업 등기소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체코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체코 공증인 사무소가 발행한 공증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체코 이외의 국가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 하에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특정 상황 하에서는 체코로 그 등록된 본사를 옮길 수도 있다. 2014 년 1 월 사법(私法)에 대한 새로운 성문법이 발효되어 (즉, 새로운 민법 및 회사법) 사법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지사

외국 회사의 지사는 체코의 법인이 아니지만 외국회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며 해당 외국 회사를 대신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지사는 설립자의 사업활동과 일치하는 사업활동만을 할 수 있다. 지사는 임명된 지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는 지사의 업무와 관련해 해당 외국회사를 대신해 활동할 자격이 있다. 그/그녀는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지사의 본사가 설립될 때 적용된 법이 지사의 내부 거래에도 적용된다.

유한회사 – SPOLEČNOST S RUČENÍM OMEZENÝM (s.r.o.)

설립

유한회사는 통상적으로 단지 중소기업 설립에만 사용된다. 유한회사는 (i) 하나의 주체(개인이건 법인이건)에 의한 설립자 증서 또는 (ii) 몇몇 주체 또는 개인들이 체결한 회사설립계약서에 의해 설립된다. 그러한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는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그러한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는 유한회사가 정관을 발행할지의 여부도 명시하여야 한다.

등록자본

회사의 등록자본은 주주가 제공한 출자금으로 구성된다. 각 주주가 출자하는 최소 등록자본은 CZK 1 이다. 그러나 그러한 적은 출자금의 경우에는 파산의 위험성 (그리고 중역들과 주주들에 대한 관련 결과)이 고려되어야 한다. 회사를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에 현물 출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는 현물 출자, 그 가치 (전문가가 결정한), 그 가치를 결정한 전문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회사를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최소 납입 출자금의 30%는 불입되어야 한다.

지분관계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지분은 주주의 회사 참여 및 그러한 참여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지분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한 해당 주주의 출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유한회사는 하나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거기에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가 부가된다. 예를 들어, 회사를 위해 일할 의무가 하나의 지분에, 더 많은 액수의 출자를 할 의무가 다른 지분에 부가될 수 있다. 한 주주는 하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가 허용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쉽게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서 (공증된)가 필요하다. 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다 (회사설립계약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한 주주는 또한 주주총회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가 그러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지분은 또한 “공용 인증서”라 불리는 공인 증서를 통해 양도할 수 있다. 이는 그 양도가 제한되어 있거나 조건이 붙지 않은 지분에만 가능하다. 공용 인증서는 구두/서면 계약, 배서 및 인도 등으로 양도할 수 있다.

법인체

유한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식회사보다 더 간단하다.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다. 유한회사의 집행기구(인)는 한 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법률은 이사의 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그 수는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상임이사는 주주총회 (회사의 최고 기구) 또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단독 주주가 임명한다. 각 상임이사는, 설립자 증서나 회사설립계약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설립자 증서나 회사설립계약서는 그 상임이사들이 집단 기구를 형성한다고 명시할 수 있으며, 그 집단 기구가 주식회사 이사회와 비슷한 상임이사의 법적 지위를 행사한다. 법률은 유한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설립자 증서나 회사설립계약서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감사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 – AKCIOVÁ SPOLEČNOST (a.s.)

설립

주식회사는 대개 대기업 설립을 위해 사용된다. 주식회사는 한명 이상의 주주들 (법인 또는 개인)이 작성한 정관으로 설립된다.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주식

주식회사는 주식증서 또는 장부상주식의 형태로 무기명 또는 기명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4 년 1 월 1 일부로 무기명주식증서는 금지되었고 기존의 무기명주식증서는 은행에 동결하거나 (예치) 장부상주식으로 교환해야 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제한 받을 수 있지만 (예, 주주총회의 양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정관에는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무기명주식의 양도는 제한 받지 않는다. 기명주식증서는 구두/서면 계약, 배서, 주식의 인도에 의해 양도된다. 장부상주식은 새로운 주주가 중앙증권예탁원에 등록됨으로써 양도된다.

등록자본

최소 등록자본은 CZK 2,000,000 (또는 특별법에 의해 유로화로 장부 기록을 하도록 허용되는 회사는 EUR 80,000)이다. 회사등록을 상업 등기소에 신청하기 전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그 보다 더 일찍), 등록 자본의 최소 30%가 불입 완료되어야 한다.

법인체

주식회사의 집행기구(인)는 이사회이다. 이사회 임원들은 주주총회가 선출하고 해임한다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감사회가).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감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주식회사는 감사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 감사회가 이사회의 활동 내지는 주식회사의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한다.

그 게 아니라면, 주식회사는 이사회나 감사회 대신 관리위원회 및 단독 이사를 둘 수 있다. 법인체 구조의 선택은 (즉, (i) 이사회 및 감사회 또는 (ii) 관리위원회 및 이사)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의 설립

위에 언급한 것처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체코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민법에 따라, 만약 한 법률행위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행위가 수행되는 근거에 관한 위임장 역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약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약 외국 법인이 체코에서 회사를 설립하길 원한다면 그 허가 받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체코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에 대한 공증증서를 스스로 받기 위해 또는 해당 회사의 추후 설립을 위한 위임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러나 체코 상충규칙(conflict of rules) 규정에 따르면, 위임장이 (i) 본사가 위치하고 있거나 (ii) 위임장이 발행된 국가의 법률 하에서 충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위임장은 체코에서도 충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공증증서의 필요성은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제공 회사 중 하나로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사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증받은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투자자가 투자이익을 얻기 바라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위 사항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단독 주주 결정사항 (예, 정관의 개정)에도 적용되지만 주주총회 결정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회사가 한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주주총회 결정에 대해서도 공증된 서명이 있는 위임장만으로도 충분하다).

본 섹션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현재의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체코 법원 및 공증인의 미래의 해석 또는 새로운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은행계좌 개설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아래 참조), 설립자들은 이 목적만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특별 은행계좌에 출자금을 불입해야 한다. 회사가 상업 등기소에 등록되기 전에는, 이 출자금이 회사 설립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은행은 그러한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회사가 (또는 다른 사람이)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별 은행계좌는 은행과 회사의 출자금 관리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개설된다. 출자금 관리인은 출자금 불입 (현금 출자금 또는 현물 출자금)을 책임지는 (상업 등기소 등록 전) 개인 (설립자 또는 다른 사람)이다. 출자금 관리인은 외국인일 수도 있다.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해당 출자금 관리인은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을 스스로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외국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은행은 출자금 관리인의 위임장 (일반적으로 서명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함)만으로도 특별 은행계좌 개설을 허용한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회사 설립 전에 (출자금 관리인을 임명하기 전에) 특별 은행계좌 개설에 따른 제반 특수 요구조건 등을 해당 은행과 협의해 보도록 권한다.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인출할 권리를 원한다면, 그 사람 역시 스스로 은행을 방문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업인가 및 대리행위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아래 참조), 지사와 회사는 모두 사업인가사무소로부터 수행하려는 사업활동에 관련된 사업인가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사업 인가조건을 책임지고 준수할 책임대표자 (체코어로 "*odpovědný zástupce*")를 임명해야 한다. 소위 자유무역 (체코에서는 "*volná živnost*" 라 함) 인가에 해당하는 80 개의 일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책임대표자의 임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한명의 책임대표자가 회사의 한 개 이상의 사업인가에 대해 책임질 수도 있다. 반면 한명의 책임대표자가 4 명 이상의 기업가를 대신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회사는 사업인가사무소에 단일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한 단일 신청서를 통해 회사는 (i) 사업인가 및 (ii) 세무서 등록 (소비세 및 몇몇 환경세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세금 납부를 위해) 모두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책임 / 형사책임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법적 의무를 보장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등록 자본에 대한 미납 출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회사의 의무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보장한다. 체코 회사의 상임이사, 이사, 이사회 멤버들은 신중히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 어떤 경우에는 새도우 디렉터(*shadow director*)들 (즉, 회사의 공식 직책은 없으면서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또는 그룹의 다른 회사들이 회사에 손해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체코의 법률 시스템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다; 그러한 책임은 어떤 경우 체코 국경 외부의 지역에도 효력을 미친다. 회사의 이사, 직원, 또는 다른 관련인들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상업 등기소 등록

회사는 각각의 등기법원 (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상업 등기소 (www.justice.cz 에서 일반인 접속 가능)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회사의 집행기구, 설립서류 (즉, 설립자 증서, 회사설립계약서, 정관 등)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창립 6 개월 내에 상업 등기소에 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 등기소 의무 표준 신청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등기법원은 부당한 지체없이 회사를 등록하거나 또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첨부서류

상업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등록할 각 정보를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한 첨부서류는 특히 다음 등으로 구성된다:

- 설립의 타당성, 설립자의 존재 여부 (대개는 상업 등기소에서 자체 추출한 기록), 설립자를 위해 활동할 대표의 권한 등을 입증하는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
- 설립 서류;
- 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요구 금액이 납입되었다는 증거 (대개는 관련 은행의 진술서로 입증됨);
- 집행기구 및 감사기구 멤버들이 서명한 진술서 그리고 자신의 세부사항을 상업 등기소에 등록해도 좋다는 각 멤버들의 동의서;
- 각 대표자 및 감사회 멤버들에 대한 형사범죄 등기소 기록(체코 형사범죄 등기소 기록 – 현재 체코에서 거주하고 있는 체코 시민 및 EU 시민의 경우 해당 기록은 법원 자체에서 추출; 대표자가 EU 시민인 경우에는, 그가 출생한 국가의 형사범죄 등기소 기록 또는 그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EU 국가의 형사범죄 등기소 기록; 그가 EU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출생한 국가의 형사범죄 등기소 기록; 모든 이러한 서류들과 기록은 3 개월이 경과된 것이어서는 않된다);
- 사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인가 등기소 (Trade Licencing Register) 또는 다른 허가기관의 기록;

- 회사의 등록 사무실이 위치할 부지의 소유자 동의서 (그 대지를 임차할 경우); 소유자 동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며 3 개월 이상 경과된 서류이어서는 않된다;
- 상기 서류나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위임장 또는 기타 서류 (예, 만약 신청서를 변호사가 제출하는 경우, 집행기구 모든 멤버들로부터 받은 신청서 제출 위임장).

부동산 취득

2011 년 5 월 1 일부터, 모든 외국인 (법인 또는 개인에 관계없이)은 – EU 외국인과 비 EU 외국인 모두 – 은 체코 공화국에서 자신들이 취득하는 부동산 형태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 모든 부동산 매입과 매도는 반드시 관련 부동산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세는 (i) 판매가 또는 (ii) 공인 감정가의 75% 중 더 큰 금액의 4%이며, 이는 매수자와 달리 협의되지 않는 한 매도자가 부담한다. 법률에 따라, 매수자가 보증인이며 해당 양도세의 납부를 보증한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에 해야 하며 양도세는 부동산 등기소에 양도가 등록된지 3 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는 달은 이 3 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새로운 민법은 (2014 년 1 월 1 일 발효)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 *“superficies solo cedit”*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구조물은 항상 그것이 세워진 토지의 주인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구조물과 토지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존재한다 – 예를 들어: (i) 2013 년 12 월 31 일 현재 토지의 주인이 해당 토지 위에 세워진 구조물의 주인과 일치하지 않아, 특정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구조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계속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ii) 구조물과 구조물이 세워진 토지에 관계된 각각의 일련의 대물권리가 서로 다르고 구조물과 토지의 소유권 합병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iii) 구조물이 단지 일시적인 성격의 구조물인 경우, 또는 (iv) 토지의 위나 안에 설치된 일정 형태의 구조물이 해당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법령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 전기 케이블, 하수관 또는 특정 형태의 도로). 구조물과 토지가 별도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각 소유권자들은 서로에 대해 우선 매입/매각권을 가진다 (즉, 구조물의 주인은 해당 구조물을 제 3 자에게 매도하기전 반드시 토지 주인에게 먼저 매입을 제의해야 한다).

데이터 메일박스

각 법인은 데이터 메일박스를 가지는데 이는 전자 저장 공간이다. 메일박스는 상업 등기소 등록 후 각 법인에게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시스템은 국가가 운영하며 그 목적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메일박스 소유자에게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데이터 메일박스를 통해 공공기관과 전자적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일이 경과되면 (해당 공공 기관의 데이터 메일박스로부터 메시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메시지(공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가 자신의 데이터 메일박스에 정기적으로 로그인하여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